

엄마 과학자, 국민 건강 책임진다! 농림부는 뭐할까?

2007/10/16 15:26

<http://blog.naver.com/maf2006/60043233405>

■ <과학기술상> 수상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상희 수의연구관 인터뷰

엄마 과학자, 국민 건강 책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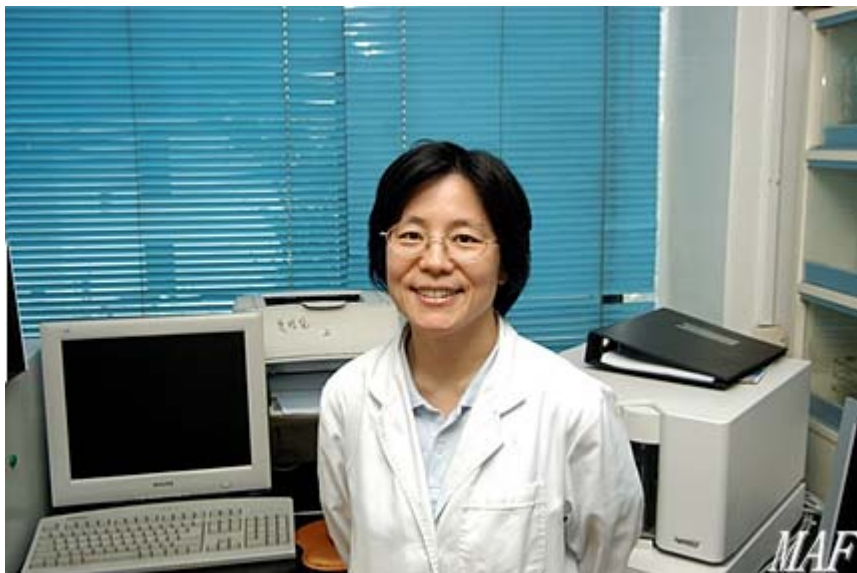
농림부 대학생기자단 이상훈, 권보라

“쯔쯔쯔... 요즘 세상에 누굴 믿고 뭘 먹겠어...”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던 어머니께서 혀를 차신다. 보아하니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로 규정된 등뼈가 또 다시 검출됐다는 보도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거리 안전성에 참 예민하다. 전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일 때 닭고기 수요가 폭 떨어지고, 항생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돼지고기 판매량이 곤두박질쳤으니 말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 직원들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깜짝 이벤트를 벌인다. 단체로 삼계탕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지글지글 삼겹살을 굽는다. 무슨 '강심장'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축산 안전성을 책임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상희 박사였다.

◆ 유일하게 정부기관출신으로 여성과학자상 수상

얼마 전, 우리나라 여성과학자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주)아모레퍼시픽이 수여한 제2회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명단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띈다.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 정상희 수의연구관이 바로 그 주인공. 대부분의 수상자가 교수직함을 갖고 있는 학계 과학자인 반면, 정상희 박사는 7명의 수상자중 유일한 정부기관 소속연구원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26명의 후보 중 심사위원 전원이 손을 들어준 만장일치 수상이라 더 뜻깊다. 그걸기에 스스로도 이번 수상소식에 누구보다 놀랐다.



△ 연구실에서 만난 검역원 정상희 연구관. 환한 미소가 푸근하게 느껴진다.

“농림부 산하 정부기관 연구소에서 국민건강에 필요한 연구를 해왔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니 무척 기쁘고 고맙을 따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실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모든 과학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검역원은 농림부산하의 검역기관으로 국민 식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외 축산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다. 수의과대학에서 독성학을 전공한 정 박사는 이곳에서 독성화학과 수의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20년 가까이 수의독성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 “여성과학자가 남자보다 더 용감한 거 아세요?”

40여종 이상의 독성평가기법 개발, 38편의 논문, <독성학요론> 등 3권의 저서, 6건의 특허, 42편의 학술발표. 이 모두는 지난 17년간 정 박사가 독성연구를 수행해오며 만들어낸 땀의 결실이다.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내분기계 교란물질 종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년에는 세계 최초로 식품 중 잔류 항생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유전자칩을 개발한 이 역시 ‘알파걸’ 정상희 박사다.

사실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공계 기피현상’과 맞물려 여성들이 선뜻 과학자의 길에 입문하기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과학자를 꿈꿔온 정 박사는 여성성이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여성과학자의 장점으로 ‘덜 권위적이고 더 세밀하고 더 용감하다’는 점을 꼽았다. 대략 수궁이 갓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용감하다는 말에 기자의 고개가 가우뚱 옆으로 기울었다.



△ 학문의 총체성, 역동성, 공익성에 끌려 '독성학'을 전공했다는 그는 과학자가 된 것에 만족한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주변 눈치를 덜 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해서 남자보다 용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주변 분위기에 쉽게 편승하거나 새로운 것에 겁을 내면 연구의 깊이도 알아지고 아이디어도 고갈되기 쉽거든요.”

덧붙여 여성과학자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이 보호받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에 길들여져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식의 습성은 여성과학자에게는 정말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는 자신의 머리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시도하는 사람인데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약해지기 십상이죠.”

◆ 과학자 꿈꾸는 두 아이를 가진 엄마

일반인에게 ‘독성학’은 생소한 분야다. 하지만 약품, 식품,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인체건강 유지 및 생태계 보전이라는 거창하게 독성학의 목표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먹거리와 닿아있기에 우리와 밀접한 학문이다. 아들, 딸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축산식품을 연구할 때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연구

에 임한다. 이런 엄마의 열정과 노력을 보면서 자라온 두 아이 모두 벌써부터 나중에 과학자가 되겠다.



△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사진 우측에서 두 번째)이 수상식에 직접 나와 수상을 축하했다.

얼마 전, 정 박사는 일부러 조그만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아파트 1층으로 이사했다. 천성이 한 가지에 쉽게 몰입하는 성격인데다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스스로가 편협해져 간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결정한 일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꽃도 심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가꾸면서 삶이 좀 더 여유로워졌다고 말한다.

“연구가 잘 풀리지 않거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씨 뿌리고 흙 돋구어주고 물주고 철에 맞게 꽃 심고 벌레 잡아주고 그러면서 정원 나무와 꽃을 보면서 풀벌레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어요.”

◆ “자녀에게 귀감 되는 세계적인 과학자 될래요”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서 식품의 위해성 안전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정 박사는 말한다. “축산분야에서 위해성 안전관리 대상은 사료, 분뇨, 동물용의약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연구하는 축산식품 중 유해화학물질,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로 한국시켜 말씀드리면,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 검토시스템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축산 식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 박사가 앞으로 추구할 연구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첨단’, 그리고 정부기관 연구관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익성’이다. “독성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독성학의 공익성에 충실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위해성 평가에 있어 국제전문가 기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계속 공헌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과학자를 꿈꾸는 두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과학자 엄마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게 될 시기에는 더 나은 연구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